

• 풍향계 •

연합회, 새 집행부 출범

대덕밸리벤처연합회 새 집행부가 출범했다.

연합회는 지난 22일 제6차 정기총회를 열어 2년 임기의 4대 회장으로 씨아이제이 백종태 사장을 선임했다. 또 대덕넷 이석봉 사장을 상근 부회장으로, 블루코드테크놀로지 임채환 사장, 에스아이 신용호 사장, 이머시스 김풍민 사장, 바이오알앤즈 조성복 사장, SH일렉트로닉스 이광성 사장, 우리정도 장태순 사장, 인바이오넷 구본탁 사장, 뉴그리드테크놀로 이형모 지사장, 바이오니아 박한오 사장 등 39명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덕밸리 벤처기업인들과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황해웅 회장, 충청하나은행 최성호 대표, 조흥은행 백남학 충청본부장, 대전시 박성효 기획실장, 원종욱 전임회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우제철 본부장, 무한기술투자 성기홍 대전지점장 등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연합회의 지난해 예산과 사업승인, 정관변경, 임원선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임원 선임에서는 수석부회장과 분과별로 임원을 선임하던 것을 변경해 상근 부회장 제도를 도입했으며, 부회장을 상근 포함 40명으로 늘렸다.

대덕밸리의 발전을 위한 감사패 증정도 있었다. 감사패는 충청하나은행 최성호 대표와 조흥은행 백남학 충청본부장, 그리고 대전시 박성효 기획실장에게 수여됐다. 또한 기관장협의회 황해웅 회장 등에 대한 고문 위촉장 전달식과 한발대 박준병 교수 등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식이 함께 실시됐다.

백회장은 취임사에서 “지금까지는 ‘대덕밸리’ 라는 발에 씨를 뿌리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싹을 틔우고 키워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대덕밸리의 특성을 살리고 벤처업체인 결속력을 다져 더욱 강한 에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 대덕밸리벤처연합회 제6차 정기총회

“대덕밸리 ‘꿈’ 위해 뭉칩시다”



백종태 신임회장

“대덕밸리의 ‘꿈’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백종태 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백 신임회장과과의 일문일답

–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그동안 이경수 회장이 잘 해왔는데 그에 버금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을 위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다. 한편으로는 대덕밸리에 대한 꿈을 갖게 된다. 내 마음 속에 ‘대덕밸리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 부회장단을 대거 임명했는데 그 이유는

“확실한 ‘역할분담’을 위해서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벤처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합회 조직을 만들까 고민한 끝에 연합회 이사진에서 잠정토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연합회 회장의 대외활동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업경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앞으로 연합회에서 할 일은

“시기적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대덕벤처들이 살아나갈 해법을 찾아나서는 것이 주요 임무다. 대덕벤처들은 기업생존의 주춧돌인 기술력이 탁월하다. 기술력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서겠다. 또한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힘든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 연합회 업무 추진방향은

“연합회의 목표는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내실화에 있다. 벤처들 각자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이다.”

– 대덕밸리가 지향할 방향은

“뭉쳐야 산다. 대덕밸리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을 마지막 상업화 단계까지 연계시키고, 시장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대덕밸리 기업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협력을 통해 얻는 시너지 효과를 바라보자.”

벤처국방마트 2002 폐막



▲ 갑천둔치에 전시된 최신무기들

대덕밸리가 명실상부한 국방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변모해 가고 있다.

대전시와 육군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상군 페스티벌-벤처국방마트 2002'가 지난달 3일간 일정을 끝으로 성료했다. '벤처와 국방과의 만남'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양이나

질적으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 국방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박람회로 자리잡았다는 평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1백58개 기업과 18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관하는 등 행사 이래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성과는 육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점. 국방부 조달본부를 비롯해 소요제기 부서인 육군 교육사령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관계자들이 대거 행사장을 찾아 벤처기업들의 첨단 기술 및 제품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행사 이튿날에는 김관규 육군참모총장 등 고위장성이 행사장을 방문해 "벤처기업들의 기술이 방위산업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올해 국방마트는 특히 육군의 대표적 행사인 '지상군 페스티벌'과 연계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옥외 행사장에는 그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탱크, 장갑차, 고사포, 무인 정찰기 등 50여 대의 최신 지상군 무기들이 선보여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았다. 또한 갑천둔치에는 코브라, 블랙호크, 시누크, 500MD 등 20여 대의 헬기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교통체증을 겪기도 했다.

최신 지상무기 전시회에는 3일 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몰려 육군 관계자들조차 당혹케 할 정도였다. 육군은 홍보단 부스를 마련해 '국민과 함께 하는 육군'답게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었다.

육군본부 조원철 중령은 "지난해와 달리 기업들의 기술이 더욱 발전한 것 같다"면서 "군에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국방부에 조달구매를 요청하거나 소요제기토록 할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덕밸리 투어 성료

"대덕밸리 와보니 역시 다르네요."

"진짜 실력있는 벤처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자!! 대한민국 희망 1번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된 대덕밸리 투어에는 대전은 물론 서울, 인천, 대구, 화성 등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투어는 카이스트, 연구소, 협동화단지 등 대덕밸리 전반을 둘러본 뒤 관심 있는 회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A,B,C 세 개 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4시간 남짓하게 진행된 이번 행사에 대해 참석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꿈이 있는 사람과 기업이 몰려 있는 곳'이라는 시각.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시장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의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다는 평이다.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온 오동수(경북대 컴퓨터과정 석사과정)씨는 "홈페이지에서 도담시스템스를 보고 관심 있어 대덕밸리 투어를 신청했는데 현장에 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성 있고 좋은 회사였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원서를 제출, 대덕밸리로 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K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 휴가를 내고 대덕밸리를 찾은 케이스. 재무·회계 분야 경력자인 K씨는 신문에 공동채용행사를 한다는 기사를 읽고 투여에 합류했다.

한편, 4시간의 투어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청주해장국에서 대덕밸리 기업인들과 간단한 뒤풀이를 했다. 이 자리에는 블루코드, 텔레포스, 테라링크, 한백 등 행사 참여기업 CEO 혹은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회사에 대해 이런저런 궁금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텔레포스 이상헌 사장은 "인재들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니 실감나게 비전과 꿈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대덕밸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채용투어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공동채용 투어 설명회